

잉글랜드 사우스다운스 블루 도어스 정원

영국 남부 구릉 지대에 있는 '블루 도어스'의 정원은 주변 풍경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대지에 구현한 신의 공간' 세계의 정원 시리즈 제157편, 블루 도어스 정원 이야기.

Downland Retreat

Tucked within the narrow lanes and gentle folds of England's South Downs, the garden at Blue Doors has been cleverly designed to blend seamlessly with the dreamy and romantic landscape that surrounds it.





영국의 국립 공원 15곳 중 하나인
사우스다운스 구릉 지대는 햄프셔주
윈체스터에서 이스트서식스주의
웅장한 백악질 절벽 ‘세븐
시스터즈’와 이스트본의
해안 휴양지까지, 약 140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다.

영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
중 하나지만, 완만한 구릉과 하곡(河谷), 야생의 황무지와 길게
뻗은 수려한 해안 등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어 천혜의 야생 동물
서식지로 통한다. 또 시장이 열리는 도시와 시간이 멈춘 듯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작은 마을이 곳곳에 자리한다.

웨스트서식스주의 소도시 애런들 근처의 구릉과 계곡 사이에
‘블루 도어스’라는 집이 있다. 잉글랜드 귀족 가문 중에서도
손꼽히는 명가인 노퍽 공작의 성에서 아주 가까운 이 저택은
데이비드 서티스와 세라 서티스 부부의 시골집이다. 긴 백악질
길을 따라가다 보면, 벽돌과 부싯돌로 지은 아름다운 집이 구릉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데, 노퍽 가문 영지의 드높은 성벽 인근에
숨듯이 자리했다. 집 주위로 야트막한 들판과 수풀 언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가운데 저 멀리 작은 시골 마을과 교회
첨탑이 보이는 풍경이 일품이다.

이웃 마을에 살던 서티스 부부는 5년 전 블루 도어스로 이사
왔다. 세라는 국립 공원 탐방로인 ‘사우스다운스웨이’를 걷던 중
이곳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지만, 이런 집이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서 구경이나
해 보자 싶었지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주변 경관을
보고 이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이탈리아를
동경했는데, 백악질의 풍경과 푸른 들판과 언덕을 보니 마치
이탈리아 전원이 눈앞에 펼쳐진 듯했답니다.”

실내 장식을 공부한 세라는 이사 오기 전 집을 개조하고
확장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집은 원래 1842년경에 농장
일꾼들의 숙소로 지어진 오두막이었다. 세라는 여러 개의 방을
터서 하나로 연결해 밝고 현대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켰고,
주변 경치를 고스란히 눈에 담을 수 있도록 큰 창문을 내고
테라스로 통하는 프랑스식 문도 달았다.

서티스 부부는 약 4047제곱미터에 달하는 정원을 꾸밀
디자이너를 신중하게 물색했다. 정원 조성은 물론이고 건물이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지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력자가
필요했다. 부부는 데비 로버츠를 선택했다. 로버츠가 몸담은
‘에이커스 와일드’라는 정원 설계 사무소는 잉글랜드 남동부에서
큰 규모의 전원풍 정원을 잘 만들기로 이름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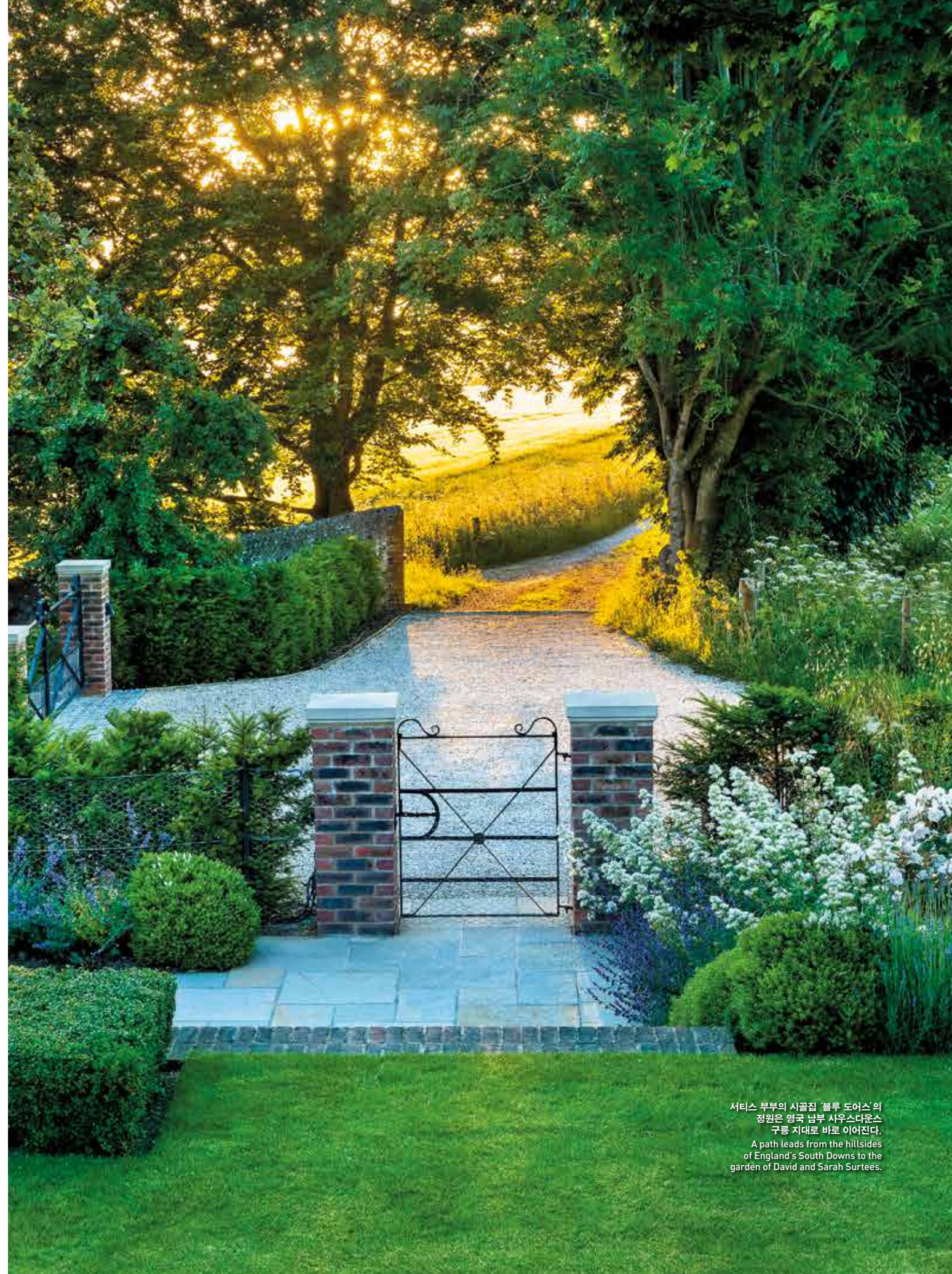
The South Downs, one of the UK’s 15 national parks,
stretches almost 140km from Winchester, in Hampshire,
to the dramatic Seven Sisters chalk cliffs and the seaside
resort of Eastbourne in East Sussex. These rolling hills,
river valleys, tracts of wild heathland and stretches of
dramatic coastline are a haven for wildlife and home to
historic market towns and sleepy villages where time
seems to stand still.

Nestled in the hills and valleys, near the West Sussex
town of Arundel — whose castle is the seat of the Duke
of Norfolk — is Blue Doors, the country retreat of David
and Sarah Surtees. Approached from a long, chalky track,
the brick and flint stone property here offers spectacular
180-degree views over a unique patchwork of downland
fields and wooded slopes, and in the distance are the
outlines of small hamlets and church spires.

The Surtees moved here five years ago from a
neighboring village. “We originally discovered the area
through hiking on the South Downs Way,” says Sarah.
“We were quite happy living nearby, but houses like this
rarely come up for sale locally so we took a look. I knew
by the time we were halfway down the track to the house,
when I saw the setting and the views, that we had to buy it.
I’ve always loved Italy, and the dry, chalky landscape here
and the colors of the fields and hills reminded me of the
Italian countryside.”

Before moving in, Surtees — who has trained in interior
design — set about modernizing and extending the
house, which was originally made up of two farm workers’
cottages that date back to about 1842. She opened up
rooms to create a light, modern, free-flowing space with
full-length windows and French doors leading to terraces,
making the most of the setting’s views.

When it came to the 4,047sqm garden, the Surtees
knew they wanted to work with a designer who would not
only help them create a setting for their new home but
also connect the property to the surrounding landscape.
For this reason they chose Debbie Roberts of award-
winning garden design practice Acres Wild, based in West
Sussex. It’s well known for creating large country gardens,
especially in South East England.



서티스 부부의 시골집 ‘블루 도어스’의
정원은 영국 남부 사우스다운스
구릉 지대로 바로 이어진다.
A path leads from the hillsides
of England’s South Downs to the
garden of David and Sarah Surtees.



‘블루 도어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붓꽃, 러시안세이지, 초롱꽃, 디기탈리스 등 파란색과 보라색 계열의 화려한 꽃을 주로 심었다.

Keeping in theme with its name, the Blue Doors garden boasts bold swathes of blues and purples with plants like irises, Russian sage, bellflowers and foxgloves.



여러해살이풀, 붉은대극, 장미 등이 정원에 흥미로운 표정을 더한다.
Long perennial grasses, red spurge and roses provide a potpourri of colors and textures in the garden.

눈부신 아침 “우리는 큰 틀만 정하고 나머지는 데비의 재량에 맡겼어요. 무엇보다 전체적인 조경이 중요했어요. 굉장히 절제된 실내와는 대조적으로, 부드러운면서도 생동감이 넘치는 정원을 완성하고 싶었거든요. ‘블루 도어스’라는 이름과 드넓은 하늘과 들판의 푸르름을 담아낼 수 있도록, 파란색을 테마로 해 달라고 했죠.” 세라의 말이다.

로버츠는 전체적으로 대담하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을 도입했다. 정원의 골격이자 핵심적 건축 요소인 길을 곳곳에 과감하게 내고 조정 과정에 자연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정원의 전체적인 인상을 위해 색상을 제한해 식물을 심은 점도 인상적이다. 정원 공사는 2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정원의 들쭉날쭉한 높낮이를 적절히 조정해 저택에 어울리는 입구를 만들었어요.” 로버츠의 설명이다. 정원의 얼굴과도 같은 새 정문에는 넓고 얇은 계단이 자리하고, 벽돌과 석회암으로 만든 테라스 양옆으로, 정사각형 잔디밭과 잘 다듬은 회양목이 줄지어 있어 마치 손님을 각듯이 맞이하는 것 같다. 테라스와 저택 주변 오솔길은 현지에서 조달한 재료로 만들었고, 곳곳에 먹고 쉬면서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 그 외에 정원 여기저기에 식물을 심어 그 부드러운 물결이 저 너머 구릉으로까지 시선을 이끌도록 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식물을 어디에 어떻게 심을지였어요. 공간의 규모와 색깔, 양식과 조화를 이루려면 대담한 동시에 단순한 설계가 필요했죠. 사계절 내내 눈을 즐겁게 해 주면서 관리하기도 쉬워야 했고요.” 로버츠의 말마따나 파란색, 연보라색, 흰색, 라임색 등 은은한 빛깔의 여러해살이풀이 화단에서 굽이치고, 키 작은 상록수 관목들이 띠 모양으로 화단을 빙 둘러 지키고 서 있다. 이곳에서는 초롱꽃, 삼쥐손이, 디기탈리스, 붓꽃, 개박하, 그리고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 흰 장미가 늦봄에서 초여름까지 황홀한 마법을 부린다.

여름이 끝나는 8월 말이 되면 러시아산세이지, 키가 큰 흰색 아네모네, 역시 흰 꽃을 피우는 수국 무리와 함께 여러해살이풀이 대담하게 화단 밖까지 넘나들며 정원의 표정을 절정으로 몰아간다. 한편 정원 반대편 끝에 자리한 작은 공간에는 사과, 배, 무화과 등 여러 과실나무가 탐스럽게 자란다.

블루 도어스의 정원은 주변의 정취를 아름답게 담아낸다. 아래쪽 하곡에서 아침 안개가 산과 들 위로 피어오를 때 정원은 또 다른 면모를 드러낸다. “데비가 이 저택의 공간과 그 분위기를 아주 잘 살렸어요.” 세라의 말이다. “그래서인지 정원이 시시각각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이곳에 오면 정말 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보다 더 황홀한 휴식이 있을까요?”

글 캐리 매카들 사진 마리아네 마예루스

MAGICAL MORNINGS “We gave Debbie a pretty open brief,” recalls Surtees. “I knew it was all about the wider landscape. I wanted something that was soft and exuberant that would contrast with the interiors, which are quite restrained. Also, to echo the name of the house and the blues of the Downs and big skies here, I gave her the challenge of a blue color theme.”

Roberts’ overall plan was a bold, modernistic scheme using strong lines and natural materials for the hard landscaping, with a restrained palette of plants repeated in generous swathes throughout the garden. “We first had to rationalize the varying levels of the garden and create a setting and entrance for the house,” says Roberts. The new front entrance is the most formal area of the garden and creates a sense of arrival with its wide, shallow steps and brick-and-limestone terracing. Terraces and pathways around the house provide areas where you can eat, relax and entertain. They also provide a framework for the soft waves of plants that roll through the garden, leading the eye to the downland views beyond.

“The planting was always going to be key,” explains Roberts. “It had to be bold and simple to work with the scale, colors and patterns of the setting. It also had to have year-round appeal and be easy to maintain.” Ribbons of low evergreen shrubs add structure to the sweeping beds of soft perennials in shades of blue, mauve, white and lime. Here bellflowers, hardy geraniums, foxgloves, irises, catmints and drifts of repeat-flowering white roses all work their magic in late spring and early summer. Later in the season, at the end of August, the garden peaks again with bold waves of perennial grasses that add height and movement to the borders, along with Russian sage, tall white anemones and groupings of white hydrangeas.

The dreamy garden at Blue Doors beautifully captures the spirit of its setting. When the morning mists of the river valley below rise over the hills and fields, it can transport you to another realm. “Debbie has played with the space here and how it makes you feel,” says Surtees. “The garden plays with your emotions. When we arrive here, there’s the sense of arriving on a holiday. It’s a magical escape.”
By Carrie McArdle Photographs by Marianne Majerus



잔디밭 위 플라타너스단풍에 걸린
그네에 앉아 블루 도어스 주변의 시골 풍경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A swing hangs from a sycamore tree
on the lawn, providing a spot for rest and
relaxation against the backdrop of the
surrounding countryside.